

금융위기 후 전문 보증사고 지급액 9배 급증

기사입력 2012-01-09 13:54:23 |

폰트 + - [화면확대] [화면축소]

정책연, 전문공조 보증실적도 2년 연속 감소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지급금 추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문건설업계의 보증사고 지급액이 9배로 치솟았다.

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전문공조의 보증청구(계약사고 등)에 의한 2011년도 보증지급액은 전년(1600억원)보다 800억원 가량이 늘어난 2400억원(1월말 최종 집계 예정)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276억원)과 비교하면 9배에 달한다. 전문업체 부실, 부도 등에 의한 보증지급액은 2000년 232억원, 2001년 186억원, 2002년 193억원, 2004년 210억원, 2005년 196억원, 2006년 218억원으로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200억원 내외에 머물렀다.

2007년 276억원으로 소폭 늘어난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565억원)에 2배로 뛰었고 2009년(994억원), 2010년(1600억원), 작년까지 매년 2배 가량 불어났다.

박선구 연구원은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되기 쉬운 영세 전문건설사의 금융지원을 맡는 전문공조는 건설경기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기관이며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액을 지급한 내역인 지급금의 급증은 계약 불이행이 급증했다는 의미이므로 실제 현장에서 업계가 느낀 경기침체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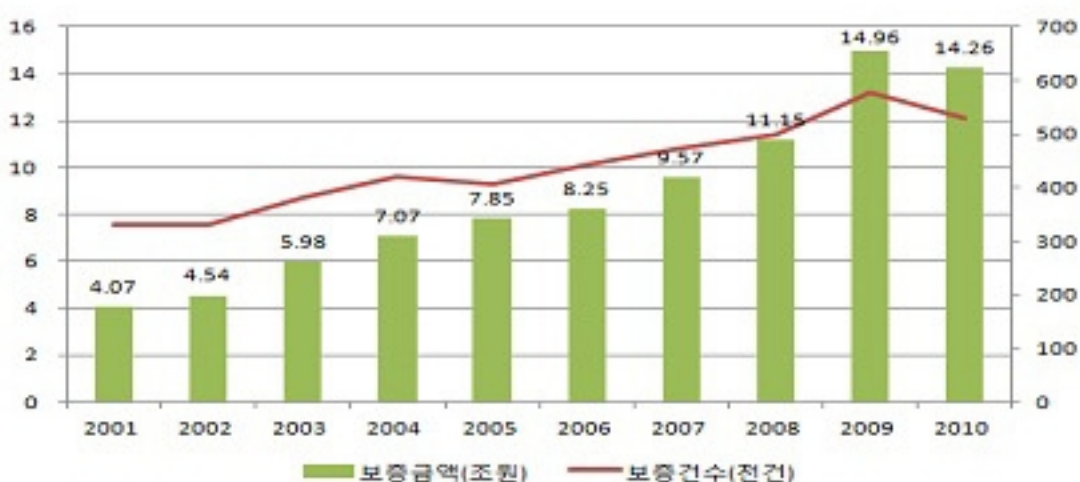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 계속 증가했던 전문공조의 보증실적도 2년 연속으로 줄었다. 2001년 4조 700억원, 2002년 4조 5400억원, 2003년 5조 9800억원, 2004년 7조 700억원, 2005년 7조 8500억원, 2006년 8조 2500억원, 2007년 9조 5700억원, 2008년 11조 1500억원, 2009년 14조 9600억원으로 이어진 증가세가 2010년(14조 2600억원)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1년에는 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게 전문공조의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근본적 해법은 보증심사를 강화하고 효율을 올리는 등의 보수적 사업운용뿐이지만 조합원 출자에 기반한 기관 특성상 쉽지 않다"며 "경기에 민감한 선급금보증이나 계약보증 등 일부상품에 90% 이상 치중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방법이 유효할 뿐"이라고 진단했다.

2010년 보증액만 봐도 81.6%가 계약보증과 선급금보증으로 채워질 정도로 특정상품 의존도가 높다. 특히 연구원 분석상 경기변동에 따른 실적증감의 진폭이 가장 큰 선급금보증이 급증하는 추세도 문제로 지목됐다. 보증사고율만 봐도 선급금 보증의 보증지급액 비중은 2006년 18.1%였지만 2010년 43.1%로 2배 이상 늘었다.

전문공조도 작년에 리스크관리팀을 신설하고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자재납품보증 등의 신상품과 준조합원제도 도입 등의 보증수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문공조 관계자는 "5월께 나올 정부의 새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맞춰 리스크관리를 내실화하고 공제·보증상품을 다각화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근원적인 해법은 건설경기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추이